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프런티어 시즌2

판소리 중심 창작 작품 발굴 · 지원 방식 개편... 1~22일까지 판소리 소재 장르 불문 공모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지난 10년간 걸어온 소리프런티어의 역사를 담고 '소리프런티어 시즌2'로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연다.

전주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소리프런티어 시즌2' 공모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형 월드뮤직 뮤지션을 발굴하고 아낌없는 지원으로 활약했던 소리프런티어의 방식을 새롭게 개편, 판소리 중심의 창작 작품을 발굴·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이에 따라 소리프런티어 시즌2 무대에는 앞으로 판소리의 형식과 내용, 구성 등을 소재로 한 창작 작품이 오르게 된다.

공모는 음악, 무용, 퍼포먼스, 소리극, 융복합 등 장르를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기획단계 공연, 기존에 발표된 작품도 지원할 수 있다.

1차 서류 심사,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5월 27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소리축제는 선정된 작품이 전문가 자문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질의 공연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발표작은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재조명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작품의 예산에 따라 창작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며 공연장 기본 대관 및 홍보를 제공한다. 선정작은 올해 소리축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지난 10년간 걸어온 소리프런티어의 역사를 담고 '소리프런티어 시즌2'로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연다.

제를 통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세계소리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20주년을 맞은 전주세계소리축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 /뉴스시스

“지역 역사문화 중심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최흥선 제2대 국립익산박물관장 취임

최흥선 전 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제2대 국립익산박물관장에 취임했다.

최 신임 관장은 국립제주박물관에서의 첫 근무를 시작으로 전주박물관 학예연구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

장 등을 역임했다. 최흥선 관장은 “국립익산박물관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젊은 박물관으로 세계유산 미륵사지와 함께 숨 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지역과 세대를 포용하는 지역 역사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표 명소다.

한편, 2020년 1월 10일 개관한 국립익산박물관은 미륵사지(사적 제150호)의 서쪽에 있는 유적밀착형 박물관으로, 백제 불교 문화와 공예·건축기술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40여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익산의 대

임실문화원장 이·취임식 열려

최성미 원장 이임 · 김태진 원장 취임

임실문화원이 지난달 30일 문화원 공연장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문화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임하는 최성미 원장은 12년간 문화원장으로 재직하며 향토역사문화 조사사업, 임실 향일운동사, 문화재 등록 추진 등 임실군민의 인문 소양 증진과 애항심 고취에 기여했다.

신임 김태진 원장은 임실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직 후 임실군 민주평동협의회회장, 임실군 노인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지난 3월 문화원 정기총회에서 제20대 임실

문화원장으로 당선되어 2025년 2월까지 4년간 문화원을 이끌어간다.

김태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임실의 전통 문화를 발굴·계승하고 문화·예술의 장르별 모임을 활성화하여 임실군민들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문화원이 지역문화를 이끄는 중심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민 군수는 “최성미 원장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별한 애정과 헌신으로 지역 고유 역사문화의 전승과 선양을 통해 우리 지역의 뿌리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셨다”며 아쉬운 마음과 감사패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



신임 김태진 원장님께서 문화원이 임실 문화의 거점으로 군민 모두가 문화를 통해 보다 품격 높은 생활을 향유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서양화가 강경숙 개인전 ‘ㅇ(이음)’展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서 25일까지 진행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25일까지 박물관 분관인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에서 서양화가 강경숙 개인전 ‘ㅇ(이음)’展을 개최 중이라고 밝혔다.

강경숙 작가는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회화 전공)을 졸업하고, 현재는 제19대 한국미술협회 군산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제6회 가천그림그리기대회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군산미술협회 소속 작가들과 함께 선양동 해맞이길 일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완성하기도 했다.

강 작가의 여섯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는 ‘언어의 소리를 느끼다’라는 주제로 ‘ㅇ(이음)’을 시각적 언어와 청각적 언어, 작가가 느끼는 감각적 언어로 표현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연결, 연인, 여인, 엄마 등 언어 ‘이음’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인연의 고리를 표현한 작품들과, 이름다움, 연속 등 언어 ‘이음’이 가지는 긍정의 힘을 표현한 작품, 삶의 에너지와 함께하는 있음과 없음의 ‘이음’을 표현한 작품 등 서양화 20여점이 전시되었다.

박물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참여하는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는 25일까지 분관인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에서 서양화가 강경숙 개인전 ‘ㅇ(이음)’展을 개최한다.

작가들의 작품을 박물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개해 직접 전시관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예술있슈Issue’ 청년 소규모 모임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 15일까지 접수... 프로젝트 추진비 · 멘토링 제도 등 지원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2021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Issue’ 청년 소규모 모임 활동 지원에 나섰다.

‘예술있슈Issue’는 청년이 주체가 돼 지역의 환경·이슈·문화 등을 제안하고 해결하는 과정 중심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모임에 최대 400만원 이내 차등 지원한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 간 진행되며,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 공고문에서 사업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ej_kim@jbct.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전라북도내 주소가 두거나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전라북도 청년모임 5인 내외면 누구나 가능하다. 특히 청년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 모임 또는 지역문화 이슈를 문화예술로 풀어내고자 하는 청년 소규모 모임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선정된 청년모임에는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추진비 및 멘토링 제도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문화사업팀(063-230-744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2021 청년 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ISSUE>
청년 소규모 모임 모집
 내가 기획하고 생각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북지역 청년 소규모 모임 활동을 지원합니다.
 공모기간: 2021.3.26(화) ~ 4.15(수)
 접수기간: 2021.4.1(수) ~ 4.15(수) 18:00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시, jkim@jbct.or.kr 접수(신청서 1000까지 접수가능)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담당자(이메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활동내역 등)를 첨부하여, 민간단체(비영리)로 운영 중인 모임이어야 합니다.
 지원규모: 1개 모임당 최대 4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문의처: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063-230-7442

전북문화관광재단이 2021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Issue’ 청년 소규모 모임을 모집한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dum, NAVER jjctv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